

다니엘서 - 제109번

예언의 삼중적 적용을 밝히다: 요한계시록 9장의 예언적 의의와 현대 개혁운동

Jeff Pippenger
2024-03-01

요한계시록 9장의 전반부는 첫째 화인 다섯째 나팔을, 후반부는 둘째 화인 여섯째 나팔을 가리킨다. 이 두 나팔은 1843년과 1850년 선구자 도표들에 시각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1989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끝의 때에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의 봉인이 풀렸을 때, 14만 4천의 개혁 운동이 시작되었다.

1989년에 인식된 진리들 가운데 하나는 성경 역사 속의 위대한 개혁 운동들이 모두 서로 평행을 이룬다는 것이었다. 모든 선지자들, 곧 거룩한 개혁 운동들을 포함한 모든 거룩한 역사들은, 셋째 천사의 강력한 운동이기도 한 14만 4천의 마지막 위대한 개혁 운동을 예증한다. 인치는 과정이 시작될 때, 늦은비의 뿌림도 함께 시작된다. 1989년에 개혁 운동들의 봉인이 풀리고 이어 1992년에 다니엘 11장 마지막 여섯 절의 봉인이 풀렸을 때, 새롭고 현재적인 진리가 풀릴 때마다 늘 그러하듯, 저항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의 진리에 대한 반대 가운데, 주께서는 이교 로마의 예언적 역사와 교황 로마의 예언적 역사가 결합되어, 두 증인의 증언에 기초하여 확립된 바와 같이, 현대 로마의 예언적 역사를 식별한다는 진리를 열어 주셨다. 예언의 삼중 적용 법칙이 인정되었고, 이후 오류를 방어하고 진리를 식별하며 확립하는 데 사용되었다. 모든 개혁 선이 다른 개혁 선들과 평행하다는 것을 지지하는 규칙들과, 예언의 삼중 적용과 관련된 규칙들은, 밀러주의 역사에서 제정되고 사용되며 출판되었던 규칙들에 의해 예표된 바와 같이, 셋째 천사의 운동에서 확립된 규칙들의 초석이 되었다.

원칙으로서의 예언의 삼중 적용은 14만 4천의 운동을 위해 봉인이 풀렸다. 그들은 늦은비의 운동이며, 셋째 화의 이슬람은 늦은비의 기별이기 때문이다. 예언의 삼중 적용 원칙은 2001년 9월 11일에 셋째 화의 이슬람이 역사 속에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유다 지파의 사자에 의해 밝혀졌다. 이는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예레미야의 옛 길들로 돌아가게 하실 때, 셋째 화의 도래가 나타내는 기별을 마지막 때의 백성이 쉽게 알아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9장에 제시된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에 대한 초기 선구자들의 이해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역사적 증거로 가장 견고하고 명확하게 뒷받침되는 대목으로 여겨졌다. Uriah Smith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역사가 Keith의 말을 인용하며 요한계시록 9장에 대한 자신의 설명을 시작한다.

이 나팔에 대한 해석을 위해 우리는 다시 키스 씨의 저술을 인용할 것이다. 이 저자는 다음과 같이 사실대로 말한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곧 첫째와 둘째 화를 사라센인과 터키인에게 적용하는 문제만큼 해석자들 사이에 이처럼 일치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그것은 너무도 분명하여 거의 오해될 수가 없다. 각각을 한두 절로만 지적하는 대신, 요한계시록 9장

전체가 둘 다를 동일한 분량으로 묘사하는 데 할애되어 있다." 유라이어 스미스, 다니엘과 계시록, 495쪽.

첫째와 둘째 화의 장 구분은 무함마드로 대표되는 첫째 화의 역사를 구분한다. 그것은 역사가 알렉산더 키스가 사라센이라 부르는, 오늘날 우리가 아라비아라고 부르는 곳으로 지리적으로 특정된다. 둘째 화의 역사는 오스만 1세로 대표되며, 역사가가 투르크인으로 식별하는 터키에 지리적으로 위치해 있다. 첫째 화의 역사는 이슬람과 무함마드의 발상지인 아라비아에서 자리 잡고 성취되었다. 둘째 화의 역사는 오스만 제국의 발상지인 터키에서 자리 잡고 성취되었다.

첫째 화의 역사는, 서로를 묶어 주는 유일한 결속이 이슬람교뿐이었던 독립 전사들에 의해 로마를 상대로 수행된 전쟁을 가리킨다. 둘째 화의 역사는, 칼리프국이라 불리는 조직화된 종교와 국가 권력에 의해 로마를 상대로 수행된 전쟁을 가리킨다. 어느 경우든, 무함마드가 대표하는 역사에서의 로마에 대한 독자적 전쟁이든, 오트만 또는 오스만 제국이 대표하는 조직적 전쟁이든, 전쟁 방식은 기습적으로 예기치 않게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당시의 군사 관행처럼 모든 병사에게 같은 색의 제복을 입히고 병사들을 대열로 정돈해 총탄 속으로 전진시키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전쟁이 아니었다. "assassin"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기습적이고 예기치 않은 공격이라는 이슬람식 전쟁 방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대개 공격자 자신도 사망하는 결과를 낳곤 했다.

"assassin"라는 단어는 아랍어 "hashshashin"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hashish"에서 온 말로, "해시시" 또는 "대마"를 뜻한다. 이 용어는 원래 중세 시대 중동에서 활동하던 니자리 이스마일리 무슬림의 비밀스럽고 광신적인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치적 암살을 포함해 비정통적이고 종종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들은 때때로 임무를 준비하기 위해 해시시를 복용했다고 전해지며, 이 때문에 서구에서 "hashshashin" 또는 "assassins"라는 용어가 쓰이게 되었다. "Assassins"는 중세 시대에 주로 페르시아와 시리아에서 활동했으며, 그 시기 여러 정치적 갈등과 암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결국 "assassin"이라는 용어는 유럽의 여러 언어로 들어가, 정치적 또는 표적 살인을 수행하는 개인을 더 넓게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이 전쟁 방식은 세 가지 화의 중요한 예언적 특징이다. 이는 이슬람의 예언적 역할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징으로서의 이슬람은 전쟁을 가리키며, 요한계시록 9장에서 첫째와 둘째 화에 나타나는 이슬람은 그들의 전쟁을 보여 주는 예시이다. 그들의 전쟁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열방을 분노하게 하는 행위로 요한계시록에서 규정되어 있다.

민족들이 분노하였고 주의 진노가 임하였으며,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이르렀고, 주의 종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작은 자와 큰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실 때가 되었나이다. 요한계시록 11:18.

"열방"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직전에 "분노하게" 되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임하는 일곱 마지막 재앙이다. 이 절에는 세 가지 이정표가 있다. 열방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죽은 자들을 심판할 때이다.

여기서 언급된 죽은 자들의 심판은 천년기 동안 이루어지는 악한 죽은 자들의 심판을 가리키며, 1844년 10월 22일에 시작된 죽은 자들에 대한 조사심판이 아니다. 화이트 자매는 이 절의 세 이정표가 서로 구별되며, 절에 나열된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나는 열방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죽은 자들을 심판할 때가 서로 구별되어 차례로 이어지며, 또한 미가엘이 아직 일어서지 않았고 지금까지 없었던 환난의 때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을 보았다. 이제 열방이 분노하고 있으나, 우리의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그분의 일을 마치시면 일어나 보복의 옷을 입으실 것이며, 그때 마지막 일곱 재앙이 쏟아질 것이다.

"나는 네 천사가 성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마칠 때까지 네 바람을 붙들고 있을 것이며, 그 후에 마지막 일곱 재앙이 임할 것을 보았다." 초기 문집, 36쪽.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이슬람의 역할은 여러 나라를 분노하게 하는 것이며, 그 역할은 전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성경의 첫 번째 책에서 이슬람의 역할은 이스마엘로 표현된 이슬람을 대적하도록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손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여호와와 사자가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그의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리라. 창세기 16:11, 12.

"손"이라는 단어는 상징으로서 모든 성경적 상징과 마찬가지로,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 예언에서 "손"은 전쟁의 상징이다. "들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라비아의 야생 나귀를 가리키는 말이며, 이는 여러 중요한 예언적 함의를 지닌다. 그중 하나는 아라비아의 야생 나귀가 말과 마찬가지로 동물 분류상 말과(Equidae)에 속한다는 점이다. 요한계시록 9장과 하박국의 두 거룩한 도표(1843년과 1850년 개척자 도표)에서도, 말은 세 화와 관련된 이슬람이 대표하는 전쟁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슬람에 대한 최초와 최후의 언급은 이슬람을 말과(Equidae, 나귀 또는 말)의 상징과 동일시하며, 두 책 모두 이슬람의 역할이 "모든 사람"(열국)에게 전쟁을 가져오는 것임을 강조한다.

요한계시록 아홉째 장, 열한째 절에서 이슬람의 성품이 밝혀지는데, 예언적으로 성품은 이름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슬람을 다스리는 왕에게 주어진 이름은 창세기에서 이슬람에 대한 첫 언급을 반영하는데, 거기에는 이스마엘의 성품, 곧 영이 '그의 모든 형제들 앞에서 거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온 이슬람을 다스리는 왕은 이스마엘의 영(그들의 왕)이며, 그의 손은 '모든 사람을 대적한다'.

그들 위에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무저갱의 천사였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다. 요한계시록 9:11.

히브리어로 대표되는 구약에서든, 그리스어로 대표되는 신약에서든, 이슬람 종교의 신봉자들을 지배하는 존재는 아바돈 또는 아폴리온으로 식별되며, 둘 다 '죽음과 파괴'를 의미한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죽음과 파괴가 이슬람의 특징이다. 나귀나 말의 상징과 관련하여, 이슬람의 모든 신봉자 안을 지배하는 영의 구체적 특성은 이슬람에 대한

처음과 마지막 언급 모두의 요소이다. 이 두 가지 예언적 속성은 알파와 오메가의 표징을 지니고 있다. 화잇 자매는 14만 4천을 살어나게 하는 메시지를 셋째 천사의 강력한 군대라고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사들이 네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그 바람은 노하여 풀려나 온 땅의 지면 위로 질주하려 하며 그 길에 파멸과 죽음을 몰고 오는 사나운 말로 표상되어 있다.

“우리가 바로 영원의 세계 가장자리에서 잠들어 있을 것인가? 우리가 둔하고 차갑고 죽은 상태에 있을 것인가? 오, 우리의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 생기가 그분의 백성에게 붙어넣어져, 그들로 하여금 자기 발로 서서 살게 되기를! 우리는 그 길이 좁고 그 문이 협착하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 협착한 문을 통과할 때, 그 넓이는 한계가 없다.” Manuscript Releases, volume 20, 217.

십사만 사천을 인치는 동안 네 바람은 억제되어 있으며, 그 네 바람은 '지나가는 길에 죽음과 파괴를 싣고 오는' '성난 말'이다. 2001년 9월 11일, 셋째 화가 예언의 역사 속으로 도래하여 '죽음과 파괴'를 가져와 '열방을 분노하게' 했고, '갑작스럽고 뜻밖에' 영적 영화로운 땅을 강타했다. 2023년 10월 7일, 셋째 화는 '죽음과 파괴'의 길을 계속 걸으며 '문자적 영화로운 땅'을 '갑작스럽고 뜻밖에' 공격함으로써 '열방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첫 번째 뜻밖의 공격은 십사만 사천을 인치는 기간의 시작을 표시했고, 2023년 10월 7일의 최근 공격은 십사만 사천 인침의 끝맺음 기간, 곧 '매듭짓기'의 시작을 표시한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의 바로 문턱에서 잠들 수 있겠는가?

두 개의 성스러운 개척자 도표 모두에서 첫째 화와 둘째 화의 이슬람은 군마를 탄 이슬람 전사들로 묘사되어 있다. 두 그림 모두에서 첫째 화의 군마에 탄 기수는 창을 들고 있고, 둘째 화를 대표하는 말의 기수는 소총을 쓰고 있다. 이 구분은 요한계시록 9장에서 분명히 확인되는데, 둘째 화의 역사에서 화약이 발명되어 전쟁에 처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9장 17절부터 19절에 대해 논평하면서, 유라이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이 묘사의 첫 부분은 이 기병들의 외모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 색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붉은 붉은색을 뜻하며, '불같이 붉다'는 표현이 자주 쓰인다. 자신스, 또는 히아신스는 푸른색을, 유허은 노란색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색들이 이 전사들의 복장에서 크게 두드러졌으니,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묘사는 주로 붉은색, 곧 주홍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이루어진 터키군 군복과 정확히 들어맞는다. 말들의 머리는 걸보기에는 사자 머리 같았는데, 이는 그들의 힘과 용기와 사나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시 막 도입된 전쟁용 화약과 화기의 사용을 가리킨다. 터키군이 말 위에서 화기를 발사했으므로, 함께 실린 도판에 보이듯 멀리서 보는 이에게는 불과 연기와 유허이 말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콘스탄티노플을 상대로 한 원정에서 튀르크인들이 화기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엘리엇(Horae Apocalypticæ, Vol. I, pp. 482-484)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한 것, 즉 콘스탄티노플의 함락과 그 결과로서 그리스 제국의 멸망은 '불과 연기와 유허', 곧 마호메트의 대포와 화기에 힘입은 것이었다. 콘스탄티누스가 그 도시를 창건한 지 이미 천백 년이 훨씬 지났다. 그동안 고트족, 훈족, 아바르족, 페르시아인, 불가리아인, 사라센인, 러시아인, 그리고 실로 오스만 튀르크들

자신까지도 그곳을 적대적으로 공격하거나 포위했다. 그러나 그 요새는 그들에게 난공불락이었다. 콘스탄티노플은 살아남았고, 그와 함께 그리스 제국도 존속했다. 그러므로 술탄 마호메트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방도를 찾느라 애를 태웠다.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을 무너뜨릴 만큼 충분히 큰 대포를 주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그가 자기에게 귀순한 대포 주조공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그리하여 아드리아노플에 주조장이 세워지고, 대포가 주조되었으며, 화포가 준비되었고, 포위전이 시작되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대해 늘 무의식적 주석가였던 기번이, 그리스 제국의 최후의 파국을 웅변적이고 강렬하게 서술하는 가운데, 이 새로운 전쟁 수단을 그의 묘사의 전면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주목할 만하다. 이를 준비하며 그는 화약이라는 근래의 발명의 역사, 곧 "초석, 유황, 목탄의 혼합물"임을 설명하고, 아무라트 술탄이 이를 일찍이 사용한 사실과, 또한 앞서 말했듯 아드리아노플에서 마호메트가 더 큰 대포를 주조하던 주조소에 관해서도 말한다. 그리고는 포위전이 전개되는 동안, "창과 화살의 연발 공격에는 머스켓과 대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와 소리와 불길의 뒤따랐고," "길게 늘어선 터키 포병대가 성벽을 겨냥해, 접근이 가장 쉬운 지점들에 열네 개 포대가 한꺼번에 천둥치듯 포격을 퍼부었으며," "적의 폭력에 수세기 동안 버텨온 성곽이 오스만의 대포에 사방에서 해체되어 많은 틈이 벌어지고, 성 로마누스 문 가까이에서는 네 개의 탑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묘사한다. 또 "전선과 갤리선, 그리고 다리에서 오스만의 포병이 사방으로 천둥치듯 포격을 가하자, 진영과 도시, 그리스인과 터키인 모두가 연기의 구름 속에 휩싸였고, 그 연기는 로마 제국의 최후의 구원 아니면 파멸로써만 견딜 수 있었다"며, "이중 성벽이 대포에 의해 잔해 더미로 전락했다"고, 마침내 터키인들이 "그 틈으로 돌파해" "콘스탄티노플을 굴복시키고, 그 제국을 전복했으며, 그 종교를 무슬림 정복자들이 먼지 속에 짓밟았다"고 한다. 나는, 기번이 도시의 함락, 곧 제국의 파괴를 오스만의 대포에 귀속시키는 방식을 얼마나 현저하고 인상적으로 제시하는지, 이것이 실로 주목할 만하다고 말한다. 그것이 어찌 우리 예언의 말씀에 대한 주석이 아니겠는가? "이 세 가지로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음이라."

18절.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19절. 이는 그들의 권세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기 때문이라. 그들의 꼬리는 뱀과 같고 머리가 있어 그것들로 해를 가하느니라.

"이 구절들은 새로 도입된 전쟁 방식이 가져온 치명적인 효과를 드러낸다. 바로 이러한 수단—화약, 화기, 대포—에 의해 콘스탄티노플은 마침내 함락되어 터키인의 손에 넘어갔다." 유라이어 스미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510-514.

셋째 화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어젯밤 나는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고, 그것은 성령을 받는 일과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에 관해 잘못된 이론을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의 사역에 대한 경고와 가르침의 메시지였다.

나는 1844년에 정한 때가 지나간 후 우리가 맞서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것과 유사한 광신주의가 이 기별의 종결기에 우리 가운데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이며, 우리가 초기의

경험에서 그것에 맞섰던 것처럼 지금도 이 악을 똑같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턱에 서 있다.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 기이하고 파란만장한 역사가 하늘의 책들에 기록되고 있다—하나님의 큰 날에 앞서 곧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되었던 사건들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열방이 분노하며, 전쟁을 위한 대대적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모의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한다. 하나님의 큰 날이 매우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열방이 전쟁과 유혈을 위해 병력을 결집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을 때까지 네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는 천사들에게 내린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 선택된 기별, 제1권, 221쪽.